

# 조선대, 2023 세계대학 순위 첫 진입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교육  
104개국 1799개 대학 평가  
국내 4년제 대학 37곳 입성



조선대학교가 영국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교육이 시행하는 세계 대학 순위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학교가 세계 대학교 순위 차트에 진입해 화제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THE)은 최근 '2023 THE 세계 대학 순위'를 통해 104개국 1799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30%) ▲연구 실적(30%) ▲논문 피인용도(30%) ▲국제화(7.5%) ▲산학협력 수의(2.5%) 등 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1971년 설립된 THE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2004년부터 세계대학순위, 소규모대학순위, 아시아대학순위 등 다양한 세계대학순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THE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4년제 대학은 총 37곳이 순위권에 입성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선대는 올해 새롭게 차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대학으로,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이들 중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가 오른 대학은 연

세대와 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있으며 1년 새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 곳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차지했다. 2위는 미국 하버드대. 공동 3위 영국 케임브리지대·미국 스탠퍼드대, 5위 미국 MIT가 올랐다. 이어 6위부터 10위까지는 컬텍 프린스턴대 UC버클리 예

일대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순위다. 이밖에 컬럼비아대, 시카고대, 펜실베이아대, 존스홉킨스대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비영리 교육단체인 세계대학랭킹센터(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CWUR)가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호남권 사립대학 중 1위(세계 1193위)에 오른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시 지역 초·중 학급당 1명씩 감축

도교육청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전남 시 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명씩 감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교육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조정 시행할 계획이다.

시 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씩 감축하고,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원 수급상황 및 지역별·계열별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유입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시·읍 지역 일부 초·중학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류교실 전환, 교실 증축 등을 통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초·중·고 학령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6만 6600여명 감소(2012년 24만9751명→2022년 18만3151명)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인 2007년 황금돼지띠(현재 중3) 출생아 증가로 일시적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6년(16만 6500여명)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여건 및 교원 수급 상황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EBS 공동, 20~21일 개최

전남교육청이 EBS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전남 여성가족재단,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안내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따른 맞춤형 대비 방법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자녀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

방엄마의 유쾌한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19일 진로진학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작은 학교인 완도 노화고를 방문해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대입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진학과 관련해 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의 학부모들에게 대입과 관련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자와 '잡 매칭'

미래지능형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호텔조리관광과 등 3개 학과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현장 실무형 인재를 꿈꾸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자들의 조력자로 나섰다.

동강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교내 생활관 드림홀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시1차 수험생 대상 제1회 잡 매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023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서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산업체 조기 적응을 위해 마련했다.

동강대는 호남·제주지역 대표로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60억 원을 지원 받는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학비 면제뿐 아니라 취·창업장려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학년 때는 취업약정 협약을 맺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산업체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동강대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과(20명), ▲미래 친환경 에너지과(25명) ▲호텔조리관광과(25명) 등 3개 계약학과에서 신입생을 뽑는다.

이번 잡 매칭 행사에서 산업체 전문가들이 특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체 대표로 ㈜현성오토텍 신재봉 대표이사

가 '직업 윤리관'을 주제로 강연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황상현 광주지역본부장이 기관대표로 나서 '궁금한 산업단지&중소기업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면접코칭 시간으로 행복한 진로진학 김근수 부원장이 '기업체 면접관이 알려주는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 동강대는 이번 잡 매칭을 통해 기업 채용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도우미로 나선다. 이달 말까지 동강대에서 면접 기업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면접 장장 대여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강대 김명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잡 매칭 행사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채용기업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미스매치 없는 산업체와 학생이 상생하는 일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계약학과 사업에도 선정돼 AI기반 e-모빌리티과를 운영하고 학기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전공분야 공무원 8명 배출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가 최근 1년 동안 전공 분야 7, 9급 공무원 8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공무원 양성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1년 동안 도시계획학과 졸업생 8명이 순천시와 구례·신안·장흥·화순군의 도시계획직, 교통시설직 7급(1명), 9급(7명) 공무원으로 합격했다.

동신대 도시계획학과는 최근 취업률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과 전남도의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사업을 수행하며 재학생들에게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토익과 한국어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졸업작품전을 실시하고 현장시찰과 현장실습, 해외연수, 팀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다.

동신대 이진우 도시계획학과장은 "스마트도시,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꿈꾸는 공작소' 2기 운영



광주교육청이 17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프로그램인 '꿈꾸는 공작소' 2기를 운영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꿈꾸는 공작소' 2기에는 10개 대학 40개 강좌를 개설, 42개 고등학교 614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꿈꾸는 공작소'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해당 대학을 방문해 전공 교수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형, 융합형 수업을 들으며 진학 방향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

학생부 위주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 대비 프로그램으로 활동 내용과 결과를 학생의 진학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도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별도의 평가 없이 70%(11시간) 이상 출석하면 자동 이수 처리한다.

특히 최고 인기 강좌로는 '소프트웨어가 별거야(with C)' 강좌가 30명 모집에 85명이 신청해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간호 Flex- 간호사 꿈꾸다', '전자현미경을 통한 미세형상의 관찰과 분석', '오늘부터 쉼! 나도 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별도의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명단을 선정했다.

광주시교육청 진학팀 관계자는 "'꿈꾸는 공작소'가 학생들의 대입 진학 설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그 인기가 매우 높다"며 "내년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 특수반 ]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편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